

16. 서귀포(西歸浦) 칠십리(七十里)²³⁾

마치 아버지의 두루마기 자락과도 같이/
어머니의 치맛자락과도 같이/
정겹고 포근한/
한라산 남쪽 기슭 아늑한 바닷가에/
물새처럼 고요히 나래 접은/
평화로운 고장 서귀포(西歸浦)...

강통원(姜通源) 시인은 그의 시집 『하늘과 땅』에서 이렇게 서귀포(西歸浦)를 노래한다.

23) 『한라일보』(삼각봉), 1995. 09. 15 (금), 논설고문.

시(詩)와 향수(鄉愁)의 도시

시인이 아니더라도 시상(詩想)을 깨우는 곳. 고향이 아니더라도 향수가 머무는 곳. 서귀포(西歸浦)는 바로 그런 곳이라고 할 수 있다.

수많은 사람들의 회억 속에 시와 노래가 흐르고 영원한 향수가 머물러 있는 도시. 그 싱그러운 바다의 도시에서 (1995년 9월) 13일부터 ‘서귀포칠십리(西歸浦七十里) 축제(祝祭)’가 열리고 있다. 올해 처음으로 서귀포(西歸浦)청년회의소 회원들이 앞장서 열게 된 이 축제가 앞으로 서귀포(西歸浦) 문화(文化)를 이어나갈 전통문화제(傳統文化祭)로 길이 자리 잡게 되기를 빌고 싶다.

이 축제를 앞두고 지난(1995년 9월) 6일 열린 학술세미나에서는 ‘서귀포칠십리(西歸浦七十里)’가 과연 어디서 나온 것인가에 대하여 문제가 제기되었다. ‘서귀포칠십리(西歸浦七十里)’라고 하면 무엇보다도 조명암(趙鳴岩)의 노래가 생각나지 않을 수 없다.

바닷물이 철석철석 파도치는 서귀포/
진주 캐는 아가씨는 어디로 갔나/
휘파람도 그리워라 쌍돛대도 그리워/
서귀포 칠십리에 물새가 운다.

우리나라 사람치고 아마 이 노래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 노래가 유명한 만큼 곧 서귀포 칠십리도 유명해졌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서귀포 칠십리를 깨치게 된 동기가 바로 이 노래 때문이었다고

할 것이다. 대중가요의 전파력이 실로 놀라운 위력을 발휘한다고 새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동기는 조명암(趙鳴岩) 가사

작사자인 조명암(趙鳴岩)은 과연 이 ‘칠십리(七十里)’를 어디서 꺼내 온 것인가. 1940년 이 노래가 세상에 나오면서부터 지금까지 50여 년 동안 줄곧 궁금증을 돋우고 있는 수수께끼라고 하겠다. 여기에 대하여 학술토론회에서는 실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 ① 성읍(城邑)에서 서귀포(西歸浦)까지 칠십리(七十里)
- ② 제주(濟州) · 성읍(城邑) · 대정(大靜)에서 서귀포가 각 칠십리(七十里)
- ③ 제주(濟州)에서 한라산(漢拏山) 횡단 서귀포(西歸浦)가 칠십리(七十里)
- ④ 아름다운 해안(海岸) 칠십리(七十里)
- ⑤ 시계(視界) 칠십리(七十里) 등등 여러 가지 주장들이었다.

가장 확실한 것은 직접 작사자에게 물어보는 일이겠지만 그것은 불가능하게 됐다.

본 이름이 조영출(趙靈出)인 그는 1934년 동아일보(東亞日報) 신춘문예로 등단한 시인이며 극작가와 작사자로도 널리 알려진 사람이다. 그러나 그는 해방 후 월북한 작가로 이북에서 문예총부위원장 등 요직을 거치고 있다. 게다가 그는 지난 1993년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그를 통하여 해답을 얻을 수는 없게 되었다.

작사자의 의도가 어디에 있었든 칠십리(七十里)를 끌어낸 직접 원전(原典)은 옛 제주(濟州)도의 지지(地誌)에서였다고 생각된다. 평소 제주(濟州)도에 관한 깊은 지식을 갖지 못했던 작사자로서는 필경 여기에 대한 기록 자료를 뒤졌을 가능성이 크다. 여기서 ‘칠십리(七十里)’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서귀포(西歸浦)의 위치를 알려주는 기록뿐이라고 하겠다. 이때 유의해야 할 점은 거리를 나타내는 기점은 어디까지나 ‘고을[부·군·현(府·郡·縣)]’이 중심이 된다는 사실이다.

탐라지(耽羅志, 이원진李元鎭) 정의현(旌義縣) 조(條)를 보면 “서귀포(西歸浦)는 현(縣) 서쪽 70리에 있다. 원나라에 조공할 때 후풍처(候風處)였다.”(西歸浦 在縣西七十里 朝元時 候風處)는 기록을 볼 수 있다. 이 같은 기록은 그 밖의 탐라지(耽羅志)나 읍지(邑誌) 등에서도 거의 같은 내용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는 “서귀포방호소(西歸浦防護所)가 현 서쪽 칠십일리(七十一里)에 있다.”고 되어 있는 등 1~2리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 일부 읍지(邑誌) 등에서는 “서귀포(西歸浦)는 관문(官門)에서 서쪽으로 70리에 있으며 민호(民戶)는 49호에 남자 1백36명, 여자 1백56명이 있다.” 등 거리를 제외하고는 다른 표현이 나타나는 것도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뒤 일제 때 나온 책들을 보면 현(縣)을 기준으로 하는 거리의 표현은 아예 없어져 버리고 있다. 그 대신 제주도편람(濟州島便覽)에는 제주성내(濟州城內)를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우면(右面)[서귀면(西歸面)]은 한라산(漢拏山)을 바로 횡단한 산길로 팔십리(八十里)에 있다.”는 기록을 볼 수 있다. 이 기록은 제주(濟州)의 경우 막바로 횡단해도 80리가 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원전(原典)은 옛 지지(地誌)에

따라서 노래가 나오던 1940년대 이전의 기록 문헌들을 놓고 검토할 때 작사자가 조선시대의 지지(地誌)를 인용하고 정의(旌義)에서 서귀포(西歸浦)에 이르는 거리에서 동기를 얻어냈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런 거리의 표현이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데 문제가 있다. 오늘날의 서귀포(西歸浦)는 적어도 ‘진주(晋州)라 천리(千里)길…’과 같은 그런 의미는 없어졌다고 할 수 있다. 서귀포(西歸浦)는 거리나 시간의 의미 보다는 환경 공간이나 환상적 의미가 크다고 생각된다.

과거 과랑도 탐사가 성공하여 세상에 알려졌을 때 그 해중 암초가 바로 이어도가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된 적이 있다. 그때 도내의 문화인들이 거의 거부감을 나타내던 일이 생각난다. 그것은 도민들의 오랜 환상과 이상향의 꿈을 깨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서귀포(西歸浦)는 영원히 온 국민의 꿈과 환상 속에 살아 있어야 할 곳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학술토론회에서 제기되었던 것처럼 ‘아름다운 해안 칠십리(七十里)’가 훨씬 큰 의미를 지닌다고 할 것이다. 칠십리(七十里)는 이제 서귀포(西歸浦)를 상징하는 개념으로 우리 모두에게 인식되고 있다. 그 원전이 어디에 있든 ‘서귀포칠십리(西歸浦七十里)’는 서귀포(西歸浦)를 가장 적절하게 대변해주는 개념으로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